

승리와 축복의 계송(Jayamaṅgala gāṭha)에 관한 고찰

안양규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국문초록

자야망갈라 가타(Jayamaṅgala Gāṭhā)는 동남아시아 불교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 받고 자주 인용되는 계송 중 하나이다. 결혼 예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나 중요한 여행을 떠날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낭송한다. 계송을 외우거나 듣는 자에게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계송은 “승리와 축복의 계송”으로 불리게 되었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불교도들 사이에서 널리 보호주(paritta)로 신행되고 있다. 이 계송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1세기와 13세기 사이에 헌신적인 불교 시인에 의해 스리랑카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야망갈라 가타는 붓다가 승리한 8개의 이야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다. 가타는 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있다: 1. 붓다에 의해 격파된 마라(Māra), 2. 붓다에 의해 교화된 된 야차 알라바카(Ālavaka), 3. 술 취한 날라기리(Nāḷāgiri) 코끼리의 조복, 4. 흉악범 앙굴리말라(Aṅgulimāla)의 교화, 5. 거짓 비방자 찐짜(Ciñcā)의 교화, 6. 외도 샷짜까(Saccaka)의 사건 교정, 7. 마하목갈라나(Mahā-Moggallāna)를 통한 난도빠난다(Nandopānanda)용왕의 조복, 8. 브라흐마신 바까(Baka)의 교화. 8개의 에피소드는 붓다와 그의 강력한 반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는 이 여덟 계송으로 구성되어, 강력한 반대자들에 대한 붓다의 승리를 칭송하며, 이 가타를 외우는 자에게는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다. 붓다의 적대자는 붓다를 죽이려고 하고, 붓다에게 굴욕감을 주며, 그

를 패배 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붓다는 자신의 위대한 공덕을 통해 침착하고 평온하게 상대자를 조복한다. 붓다는 상대방을 법에 기초한 방식대로 삶을 살도록 교화시켰다. 붓다가 그의 대적자들에게 승리할 때마다 관대, 인욕, 자제력, 자비, 지혜 등 아름다운 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교화하고 있다. 붓다의 승리를 담은 이 계송을 주기적으로 암송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붓다처럼 극복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보호주, 즉 빠릿따(paritta)로 여겨지고 있다. 붓다를 기리는 염불 수행으로도, 승원에서 승려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제어 : 자야망갈라 가타, 승리와 축복의 계송, 보호주, 빠릿따(paritta), 동남아시아, 붓다의 승리

I. 서언

자야망갈라 가타, 즉 승리와 축복의 계송은 상좌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계송 중의 하나이다.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자야망갈라 가타가 불려지고, 이사할 때나 개업할 때, 심지어 스리랑카의 경우 독립기념일에도 불리고 있다. 스리랑카에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야망갈라 가타를 학교에서 배운다. 학교에서 매일 합송된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 앞에서 10살 미만의 소녀들이 자야망갈라 가타를 운율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¹⁾ 남방 테라바다불교에서 자야망갈라 가타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 행사장에서 많이 불려진다. 영국이 스리랑카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을 때 영국인 고급관료는 귀빈을 접대하거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자야망갈라 가타를 환영사로 여겨 사용하였다.²⁾ 이런 사실은 자야망갈라 가타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애송되고 있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야망갈라 가타는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국가에서 보호주, 즉 빠릿따(paritta)로 널리 애송되고 있다. 붓다의 승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8가지 승리에 관한 계송을 외우면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붓다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불교 전승과 문헌에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1) Lily de Silva 1981, 11.

2) Tessa J. Bartholomeusz, Chandra Richard De Silva 1998, 134.

붓다의 8가지 승리를 찬탄하는 계송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불교인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여덟 계송은 붓다와 그의 강력한 반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노래하고 있다. 각 계송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붓다의 적대자는 붓다를 죽이려고 하거나, 붓다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그를 패배 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붓다는 자신의 위대한 공덕을 통해 침착하고 평온하게 상대자를 조복한다. 마침내 붓다는 상대방을 법에 기초한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변화 시켰다. 이 계송을 통해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낭송자는 기억하게 된다. 붓다가 그의 대적자들에게 승리할 때마다 관대함, 인욕, 자제력, 자비, 평온, 평화, 진실 및 기타 아름다운 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교화하고 있다. 붓다가 보여 준 모범을 따라 주기적으로 이 계송을 암송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붓다처럼 극복할 수 있다.

동남아불교에선 초등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널리 애송되고 있지만 한국 불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팔리어 낭송이나 영어 번역문을 제공하는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³⁾ 국내에선 자야망갈라 가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단지 자야망갈라 가타에 대한 번역문이 나와 있을 정도이다.⁴⁾ 국외에서도 자야망갈라 가타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스님들이 번역하고 해설한 법문집이나 해설서는 있지만 학술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학술적인 연구로 보면 동남아불교의 빠릿따(paritta) 연구에서 자야망갈라 가타가 간결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⁵⁾

자야망갈라 가타가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널리 애송되고 있지만 이 계송의 기원, 사상, 구조 등 학술적인 연구가 국내외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선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이 계송의 명칭, 성립 시기, 내용 분석, 근거 문헌,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https://www.youtube.com/watch?v=Wx6HSa25yw>. (검색일자: 2019. 1.31).

4) 전재성 2016, 58-162.

5) Lily de Silva 1981, 11; Harvey, Peter 1993, 81.

II. 자야망갈라 가타의 개요

1. 계송의 명칭

팔리어로 자야(jaya)가 승리 또는 정복을 의미하고 망갈라(maṅgala)는 행운의 징조, 불운의 징조, 축복을 의미한다. 망갈라는 미래 다가올 일의 징조(omen)로 좋은 징조로도 나쁜 징조로도 쓰이지만 대체로 좋은 일의 징조로 쓰이고 있다. 팔리어 주석서에선 maṅgala를 mam(고통 내지 고통의 조건)과 ga-la(쫓아냄, 단절)로 분석하고 있다. ‘고통의 제거’ 내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의 제거’로 이해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에 이룸’, ‘행복에 유익한 것’, ‘행복’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 축복 의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결혼 의식을 vivaha-maṅgala라고 이른다.⁶⁾ 망갈라의 일차적인 의미는 행운이나 불운의 징조로, 나아가 길상(吉祥)이나 행운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망갈라 자따까(Maṅgala-jātaka)에 한 브라흐민이 쥐에 물려 뜯긴 천은 불길하다고 믿고 있는 미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⁷⁾ 이 자따까에선 망갈라의 언어 용법에는 미신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외부의 요인(예를 들면 신이나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망갈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이전 브라흐만교가 인도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 사람들은 망갈라가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망갈라를 인간의 윤리적인 선행으로 이해한다. 망갈라의 불교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경전이 망갈라 숫따(Maṅgala Sutta)이다. 이 경전의 서두에 망갈라가 언급되고 있다. “많은 천신(devas) 들과 인간들은 망갈라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들은 망갈라(maṅgala)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최고의 망갈라인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⁸⁾ 붓다는 38가지의 망갈라에 관하여 설법한다. 여기서 망갈라는 행복 내지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을 의미하고 있다. 망갈라에 관한 설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것이다. 중생들에게 배려하고 도움을 주며 악한 일을 하지 말

6) R.L. Soni 2013, 19-20.

7) J. no 87.

8) Sn. 2,4 : Bahū devā manussā ca, maṅgalāni acintayum; Ākaṅkhamānā sotthānaṃ, brūhi maṅgalamuttamaṃ.

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망갈라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지 말라. 현명한 자와 어울려라. 존경할만한 자를 공경하라. 이것이 최고의 망갈라이다.”⁹⁾ 이 경전에선 윤리적인 행위가 최고의 망갈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브라흐만교에서 망갈라는 다소 신비적이고 신적(神的)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던 것인데 붓다는 윤리적인 의미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복합어인 자야망갈라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계송을 살펴보면 한 계송은 4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3구는 붓다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네 번째 4구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구성으로 본다면 승리와 축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첫 3구가 네 번째 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축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승리의 축복으로 번역될 수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를 호신주(paritta)로 이해하면 이런 번역이 적합할 것이다. 반대로 첫3구를 강조하게 되면 축복의 승리가 될 것이다. 자야망갈라 가타를 예불문 내지 찬불시(讚佛詩)로 여기게 되면 붓다의 승리 사건이 강조되어 축복의 승리로 번역될 수 있다. 문법적으로 보아 어느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도들이 자야망갈라 가타를 호신주로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은 축복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선 자야와 망갈라를 대등하게 여겨 승리와 축복으로 번역하였다.

2. 계송의 기원

현재의 자야망갈라 가타가 언제부터 작성되어 불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송의 내용은 초기불교 문헌에 근거하고 있다. 8가지 승리 계송은 동남아시아 불교인에겐 널리 신행되고 있지만 이 계송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틴틴레이(Tin Tin Lay)는 아마도 붓다의 생애, 교리에 정통하고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¹⁰⁾ 이런 짐작은 너무 광범위하여 계송의 기원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각도에서 자야망갈라 가타를 조망하면 좀 더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다.

상좌부의 10바라밀 성립과 관련하여 자야망갈라 가타의 성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첫 번째 계송에서 보시 등의 선법으로 붓다가 마라를 이긴 것

9) Sn. 2.4: Asevanā ca bālānaṃ, paṇḍitānañca sevanā; Pūjā ca pūjaneyyānaṃ, etaṃ maṅgalamuttamaṃ.

10) Tin Tin Lay 2012, 1.

으로 되어 있는데 페살라(Pesala)는 보시 등의 선법을 10바라밀로 이해하고 있다.¹¹⁾ 만약 이런 견해를 수용하면 10바라밀이 성립된 이후 자야망갈라 가타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상좌부 불교에서 정형화된 10바라밀은 붓다방사(Buddhavamsa)에 나온다. 그런데 붓다방사 이전에 성립된 4부 니까야에서는 10바라밀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10바라밀은 4부 니까야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소카왕 시대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²⁾ 붓다방사는 니까야 보다 늦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10바라밀의 성립은 아소카왕 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³⁾ 아소카왕은 기원전 268년부터 232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¹⁴⁾ 자야망갈라 가타는 기원전 3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구 보디(Bhikkhu Bodhi)는 10바라밀 개념은 8정도(八正道)보다 늦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초기불교 문헌, 특히 4부 니까야의 고층부분은 10바라밀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8정도를 가르치고 있다. 반면에 4부 니까야 보다 뒤에 형성된 후기 문헌에서 보살 개념이 강조되고 10바라밀 사상이 중시된다.¹⁵⁾ 상좌부 불교 문헌에 나타난 10바라밀 사상은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¹⁶⁾ 만약 이 견해를 수용하면 대승불교의 발생 이후에 형성된 것이므로 자야망갈라 가타는 대승불교 성립 이후 즉 서기 1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는 빠릿따(paritta), 즉 호신주로 신행되고 있으므로 빠릿따(paritta)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짜뚜바나와라빨리(Catubhānavārapali)와 자야망갈라 가타를 서로 비교하면 후자의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스리랑카에서 널리 알려진 빠릿따 문헌은 싱갈리어로 피릿 포따(Pirit-pota)라고 하는데 옛 이름은 짜뚜바나와라빨리이다. 짜뚜바나와라빨리는 현재 29개의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형태를 갖춘 것은 폴론나루와(Polonnaruwa) 왕조 이전인 기원 375년 승려 레와따(Revata)에 의해 결집된 것이다. 피터 하베이(Peter Harvey)는 짜뚜바나와라빨리의 편집 시기를 4세기로 두고 있는 전승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10세기에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짜뚜바나와라빨리는 원래 22개의 경전으로

11) Ācariya Buddhārakkhita(tr.) 2016, 4-5.

12) Bodhi, Bhikkhu (ed.) 2005, 9; Nalinaksha Dutt 1978, 228.

13) Horner, I. B. (trans.) 2000, vi.

14) Thapar, Romila 1980, 51.

15) Bodhi, Bhikkhu (ed.) 2005, 9-10.

16) Nalinaksha Dutt 1978, 219.

17) Peter, Harvey 1993, 79.

구성되어 있다가 후대에 7개의 경전이 추가되었다. 후대 추가된 7개의 경전 중에도 자야망갈라 가타는 들어 있지 않다.¹⁸⁾ 짜뚜바나와라빨리의 편집 시기를 10세기로 본다면 자야망갈라 가타는 10세기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의 학자들은 대체로 늦은 시기, 즉 10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웰즈(Wells)는 태국에서 중세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¹⁹⁾ 반면에 마힌다(Mahinda)는 자야망갈라 가타가 아마도 스리랑카의 중세기 후반 즉 10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카리아와삼(Kariyawasam)은 자야망갈라 가타가 스리랑카에서 불교 시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가 칸디(Kandy) 왕조 (15세기 후반-19세기) 시대에 출가 승려가 반드시 배워야 할 주제의 목록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나 17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¹⁾ 그러나 고프리치(Gombrich)는 스리랑카에서 1200년과 15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16세기에는 이미 스리랑카에서 빨리어 학습이 현저히 쇠퇴하였기 때문에 1500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²²⁾ 자야망갈라 가타의 성립은 짜뚜바나와라빨리의 편집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Ⅲ. 자야망갈라 가타의 분석

1. 계송의 내용

① 수천 개의 손을 만들고, 무기를 지니고

사나운 코끼리 기리메칼라(Girimekhala)에 앉아 있는 마라(Māra)를

보시(dāna) 등의 법으로 성웅(聖雄, Munindo)은 이겼네.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²³⁾

18) Lily de Silva 1981, 5-11.

19) Wells, Kenneth Elmer 1939, 291; Lily de Silva 1981, 11에서 재인용.

20) Mahinda Deegalle 2002, 186.

21) Kariyawasam, A. G. S. 1995, 21.

22) Gombrich, Richard 1971, 91ff.

23) Ācariya Buddhārakkhita (trans) 2016, 1: Bāhuṃ sahaṣṣamabhinimmita sāyudhantaṃ, Girimekhalam udita ghora sasena māraṃ. Dānādi dhamma 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

- ② 마라(Māra)보다 더 사나운 자, 순종시키기 어려운 자,
 밤새 내내 (붓다와) 싸웠던 야차, 완고한 야차 알라바까(Aḷavaka)를
 인내(khanti)와 제어(sudanta)로 성웅은 이겼네.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²⁴⁾
- ③ 날라기리(Nālāgiri), 강력한 코끼리, 술에 만취되어
 숲을 태우는 불꽃처럼, 천둥만큼 무시무시하였네.
 자애(慈愛, metta)로 성웅은 승리하셨네.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²⁵⁾
- ④ 칼을 치켜세우고 3요자나의 거리에서
 달려오고 있는 앙굴리말라(Angulimāla)를,
 신통력(iddhi)으로 승리하신 성웅,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²⁶⁾
- ⑤ 배를 나뭇가지로 부풀리고, 임신한 것처럼 만들고
 대중 앞에서 거친 말로 거짓 비방하던 찢짜(Ciñca)를
 평정(śantana) 그리고 즐거움(soma)으로 승리하신 성웅,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²⁷⁾
- ⑥ 진리를 저버린 거만한 삿짜까(Saccaka)는 논쟁에서
 선동가였고, 자신의 논지에 눈멀어 있었네.
 지혜(paññā)의 등불로 성웅은 승리하셨네.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²⁸⁾

maṅgalāni.

24) Ācariya Buddharakkhita (trans) 2016, 1: Mārātirekaṃ abhiyujjhita sabbarattim, Ghorampan'ālavakam akkhamathaddhayakkham. Khantisudanta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25) Ācariya Buddharakkhita (trans) 2016, 1: Nālāgiriṃ gajavaraṃ atimattabhūtaṃ. Dāvaggicakkaṃ asanīva sudaruṇantaṃ. Mettambuseka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26) Ācariya Buddharakkhita (trans) 2016, 1: Ukkhittakhaggam atihatta sudaruṇantaṃ, Dhāvanti Yojanapath'angulimālavantaṃ. Iddhī'bhisankhatamano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27) Ācariya Buddharakkhita (trans) 2016, 2 : Katvāna kaṭṭhaṃ udaraṃ iva gabbhinīyā, Ciñcāya duṭṭhavaṇaṃ janakāya majje. Santena soma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28) Ācariya Buddharakkhita (trans) 2016, 2: Saccam vihāya matisaccaka vādaketuṃ, Vādābhiropitamaṇaṃ ati andhabhūtaṃ. Paññāpadīpajalito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 ⑦ 영리하고 힘센 난도빠난다(Nandopānanda)를
 제자 상좌를 보내서
 신통력(iddhi)으로 성웅은 승리하셨네.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²⁹⁾
- ⑧ 순수하고 빛나고 위엄 있는 바까(Baka) 브라흐마신은
 완고한 외도 견해의 뱀에 물려 있었네.
 지혜(Ñāṇa)의 약으로 성웅은 승리하셨네.
 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³⁰⁾
- ⑨ 이들 붓다의 8가지 승리와 축복의 계송을
 게으름 없이 매일 칭송하고 기억하는 자는
 많은 종류의 장애를 제거하고 지혜를 갖추어
 해탈과 행복을 성취하네.³¹⁾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전자	승리 방법	근거 내지 관련 문헌
제1계송	마라(Māra)	보시 등	Sn. no. 440, J. I 72-4; Jinacarita 242-266
제2계송	알라바까(Alavaka) 야차	인욕	Sn. no. 440
제3계송	날라기리(Nālāgiri) 코끼리	자애	Vin. II 194; J. V 333
제4계송	앙굴리말라(Angulimāla)	신통력	MN. II 97
제5계송	찢짜(Ciñca)	평정	DhpA. III 178; J. IV. 186.
제6계송	사쨏까(Saccaka)	지혜	MN. I 227; MN. I 237

29) Ācariya Buddhārakkhita (trans) 2016, 2: Nandopānanda bhujagaṃ ibhudhaṃ mahiddhiṃ, Puttena therabhujagena damapayanto. Iddh'ūpadesa 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30) Ācariya Buddhārakkhita (trans) 2016, 2: Duggāhadiṭṭhibhujagena sudaṭṭha hatthaṃ Brahmaṃ visud-dhi jutimiddhi Bakābhiddhānaṃ. Ñāṇāgadena vidhinā jitavā Munindo, Taṃ tejasā bhavatu te jaya-maṅgalāni.

31) Ācariya Buddhārakkhita (trans) 2016, 2: Etāpi Buddhajayamaṅgala aṭṭhagāthā, Yo vācako dine dine sarate matandī, Hitvāna nekavividhāni c'upaddavāni, Mokkaṃ sukhaṃ adhigameyya naro sapañño.

제7계송	난도빠난다(Nandopānanda) 용왕	신통	Vism. 399
제8계송	바까(Baka) 브라흐마신	지혜	MN. I 326; SN I 142
제9계송	유통분		

2. 계송의 근거

자야망갈라 가타는 모두 붓다와 관련된 것이고 경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① 마라(Māra)에 대한 붓다의 승리

자야망갈라 가타의 첫 번째 계송은 붓다가 마라를 패배시키고 승리하는 이야기이다. 정각전 마라는 보살(Bodhisatta)이 정각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본 계송은 마라가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공격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계송 첫 부분은 코끼리에 올라 탄 마라와 각종 무기와 깃발을 가진 수천의 마군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지나짜리따(Jinacarita)에 의하면 마라가 수천의 무기를 들고 군대를 동원하여 사나운 코끼리 기리메칼라 위에 타고 많은 손에 수천의 무기를 들고 군대를 동원했다.³²⁾ 마라의 패배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코끼리 기리메칼라이다. 기리메칼라가 붓다의 덕성에 감응하여 무릎 꿇음으로써 마라와 마라의 군대가 퇴각하게 된다. 폭력적인 마군에 대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보시 등의 공덕으로 이긴 것이다. 페살라(Pesala)는 보시 등의 공덕을 10바라밀로 이해하고 있다.³³⁾

② 알라바까(Ālavaka) 야차(yakkha)에 대한 붓다의 승리

두 번째 계송은 야차(夜叉) 알라바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 이야기이다. 계송 4구 중 첫 2구는 야차 알라바까가 마라보다 더 흥포해서 밤낮으로 붓다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 계송은 알라바까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 경전은 야차 알라바까는 붓다께 이 궁전을 나갈 것을 명령하면서 시작된다. 야차의 말대로 나갔다가 들

32) 전재성 편역 2016, 26; *Jinacarita* 242-266.

33) Ācariya Buddhārakkhita (trans) 2016, 4. 테라바다 불교의 10가지 바라밀은 다음과 같다: 보시바라밀(Dāna-pāramī), 지계 바라밀(Sīla-pāramī), 출가 바라밀(Nekkhamma-pāramī), 지혜 바라밀(Paññā-pāramī), 정진 바라밀(Viriya-pāramī), 인욕 바라밀(Khantī-pāramī), 진실 바라밀(Saccā-pāramī), 결정심 바라밀(Adhiṭṭhāna-pāramī), 자애 바라밀(Mettā-pāramī), 평등심 바라밀(Upekkhā-pāramī). 일창 2012, 90-125.

어오기를 세 번 걸쳐 반복하였는데, 네 번째 이르러서 붓다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야차가 12가지 질문을 던졌고 붓다는 모두 대답하자 야차는 붓다에게 귀의하게 된다.³⁴⁾ 자야망갈라 가타에 의하면 야차의 도발에 대하여 붓다는 인내와 자제로서 야차를 이긴다. 야차가 싸움을 걸어 올 때 붓다는 인욕을 보이며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③ 날라기리(Nālāgiri) 코끼리에 대한 붓다의 승리

세 번째 계승은 미친 코끼리에 대한 붓다의 승리 이야기이다. 미친 코끼리 날라기리 이야기는 데바닷따(Devadatta)와 관련이 있다. 데바닷따는 2번의 살해 시도가 실패하자 난폭한 날라기리 코끼리를 술로 취하게 해서 붓다를 죽이려고 하였다. 평소 보다 2배 양의 술을 먹여 취한 코끼리는 닥치는 대로 부수며 붓다를 향해 돌진하였다. 도중에 코끼리는 떨어진 어린 아기를 잡으려고 하였다. 붓다는 날라기리를 향해 부드럽게 자비심으로 말씀하셨다. 코끼리는 붓다의 음성을 듣고 강한 술기운에서 깨어나 붓다에게 다가가 발아래에 꿇어앉았다.³⁵⁾ 자야망갈라 가타에 의하면 붓다는 미친 코끼리에게 자애의 세례를 베풀어 교화하였다.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날라기리의 행동을 자애로 붓다는 조복시켰다.

④ 앙굴리말라(Angulimāla)에 대한 붓다의 승리

네 번째 계승은 연쇄살인범 앙굴리말라에 대한 붓다의 승리 이야기이다. 흉포한 연쇄살인자 앙굴리말라가 붓다를 목격하고 희생의 제물로 삼고자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세존께서는神通력을 사용하고 있어서 흉적 앙굴리말라는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 세존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앙굴리말라는 멈추어 서서 세존께 멈추라고 말했다. 붓다는 자신은 멈추었으니 앙굴리말라도 멈추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앙굴리말라는 세존의 대답에 의심을 품고 묻는다. 이에 붓다는 대답한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 살아 있는 존재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 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³⁶⁾ 앙굴리말라는 칼과 흥기를 던져 버리고 붓다에게 예경하고 출가하여 붓다의 제자가 되었다. 붓다가神通력을 사용하여 앙굴리말라의 살생의 악업을 반성하게 하고

34) Sn 1:10. 동일한 내용이 SN 10:12에도 나온다.

35) J. v. 333ff.

36) MN. II., 100: *Ṭhito ahaṃ 'aṅgulimāla sabbadā sabbesu bhūtesu nidhāya daṇḍaṃ. Tuvañca pañesu asaṅṅatosi. Tasmā ṭhithoṃ tuvamaṭṭhitoṣī'ti.*

참회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⑤ 찢짜 마나비까(Ciñcā-mānavikā)에 대한 붓다의 승리

다섯 번째 계승은 찢짜 마나비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 이야기이다. 붓다가 처음 정각을 성취한 후 제자들이 늘어나자 외도들은 붓다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찢짜 마나비까를 이용하여 붓다를 파멸시키고자 하였다. 그녀는 저녁에 화장을 하고 붓다가 머물고 있는 제따바나(Jetavana) 근처 외도의 사원에 가서 머물렀다. 이런 식으로 6주가 지난 뒤 제따바나에서 붓다와 함께 향실(香室)에서 밤을 보냈다는 소문을 내었다. 9개월이 되자 그녀는 나무 조각을 엮어 배에 둘러서 피곤한 임신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붓다가 대중들을 향해 법문을 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나타나 붓다에게 임신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붓다는 법문을 멈추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제석천(Sakka)은 4명의 신을 데리고 쥐로 변신하여 찢짜의 몸으로 들어가 나무 조각을 묶고 있던 끈을 끊어버렸다. 나뭇조각이 몸속에서 떨어져 나와 발밑에 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사악한 마녀가 무상의 정등각자를 비방하고 있었다고 외쳤다.³⁷⁾ 찢짜가 자신의 배에 나무 조각을 넣고 임신한 것처럼 꾸며 붓다의 아이를 가졌다고 비방할 때 붓다는 평정하게 대처하여 찢짜의 비방을 패배시켰다.

⑥ 샷짜까(Saccaka)에 대한 붓다의 승리

8가지 승리 계승 중 6번째 외도 샷짜까를 조복시키는 내용을 담은 계승은 쫄라샷짜까 숫따(Cula-saccaka Sutta)에 근거하고 있다. 샷짜까는 논쟁에 능숙한 집안에 태어났다. 자이나교도인 샷짜까는 논쟁에 몰두하며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500명의 리찰비족 왕자들을 데리고 붓다에게 다가가 논쟁을 벌였다. 모든 씨앗과 식물이 땅에 의존하듯이 모든 공덕과 악덕이 실체적 개체인 자아(atta)에 의존하며, 자아는 항상하고, 제어할 수 있고, 실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붓다의 무아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붓다는 먼저 샷짜까의 자아 관념 중 자아의 주재성에 대하여 반박한다. 만약 육체가 자아라고 한다면 육체에게 명령을 내려 명령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냐고 붓다는 질문한다. 샷짜까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다. 붓다는 두 번 세 번 같은 질문을 샷짜까에게 던지지만 샷짜까는 답변하지 못한다.³⁸⁾ 붓다는 지혜의 등

37) J. IV., 187-9; DhA., III, 178f.

38) MN. I., 237ff.

불을 비춤으로써 삿짜까의 자아관이 허구임을 드러내어 삿짜까를 패배시키고 승리하였다.

⑦ 난도빠난다(Nandopananda) 나가에 대한 붓다의 승리

일곱 번째 계송은 용왕 난도빠난다에 대한 붓다의 승리 이야기이다. 자야망갈라 가타에서 난도빠난다는 삿된 견해를 가진 사악한 존재로 표현 되고 있다. 용왕 난도빠난다 이야기는 비슷디맛가(Visuddhimagga)에 실려 있다. 붓다는 난도빠난다라는 용왕을 교화하기 위하여 목갈라나(Moggallāna) 장로를 보낸다. 목갈라나 장로는 용왕으로 변신하여 난도파난다를 제압하기도 하고 비구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난도빠난다의 콧구멍과 콧구멍으로 출입하기도 하고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에서 경행하기도 하였다. 장로는 금시조로 변하여 금시조의 질풍을 보이면서 용왕을 쫓아갔다. 용왕은 그 몸을 버리고 동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장로의 발에 절을 올렸다. 장로는 용왕을 항복시키고 독이 없게 만든 뒤 세존의 곁으로 데리고 갔다. 용왕은 세존께 귀의하게 되었다.³⁹⁾

계송에 따르면 신통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조복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붓다가 직접 신통을 사용하여 조복한 것이 아니라 제자인 신통제일인 목갈라나 존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조복 받은 것이다. 난도빠난다 용왕을 조복시키는 에피소드는 다른 계송과 달리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첫째 문헌적인 측면에서 난도빠난다에 대한 붓다의 승리 계송은 5부 니까야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다른 7개의 계송은 5부 니까야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일곱 번째 계송은 비슷디맛가에서 볼 수 있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계송은 직접 붓다가 나가(nāga)를 상대로 싸우지 않는다. 붓다는 제자를 보내 나가를 조복시키고 있다.

⑧ 브라흐마 바까(Baka Brahma)에 대한 붓다의 승리

여덟 번째 계송은 브라흐마신 바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담이다. 브라흐마(Brahma) 신은 붓다 당시 브라흐만교의 최고신이다. 브라흐만교에서는 최고신으로 신앙되었지만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일 뿐이다. 브라흐마 바까는 우주적 수명에 고취되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세계가 영원하고, 완전하며, 이것보다 뛰어난 곳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상견(常見)에 빠져 있는 바까를 바로 잡기 위하여 붓다는 바까를 찾아 갔다. 붓다는 바까의 수명이 결코 길지 않으며, 수명이 다하면 죽어 다시

39) Vism. 399-401.

태어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전생에 선업을 지어 수명이 긴 천신으로 태어난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⁴⁰⁾ 브라흐마 바카는 자신의 과거 전생담을 듣고 자신이 영원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고 망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브라흐마 바카가 붓다의 전지(全知)를 칭송하면서 경전은 끝맺고 있다. 붓다가 바카의 전생이야기를 들려줌으로서 사된 견해에서 빠져 나오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이 계송에서 ‘지혜의 의약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다. 붓다는 브라흐마가 윤회 할 수밖에 없는 범부 중생에 지나지 않음을 일깨워 준 것이다. 브라흐마 바카에 대한 붓다의 승리는 브라흐만교에 대한 불교의 승리인 것이다.

3. 계송의 구성

자야망갈라 가타는 여덟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붓다의 정각과 관련하여 마라를 제압하는 내용을 첫 번째 계송으로 시작하여 8번째 천신을 교화하는 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 야차, 코끼리, 앙굴리말라, 찢짜, 삿짜까, 난도빠난다, 바카 등 8명의 적대자에 대한 붓다의 승리를 찬송하는 계송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계송은 유통분이다. 붓다의 8가지 승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여덟 계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면 불행을 극복하고 해탈과 지복을 얻을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8개의 이야기는 붓다의 교화 시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어느 정도 8개 계송의 순서를 붓다의 생애 시기와 관련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는 비록 5부 니까야에 한 자리에 함께 실려 있지 않지만, 5부 니까야에 실려 있는 붓다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계송이다. 첫 번째 계송은 정각 직전 마라의 도전에 대한 붓다의 승리를 담은 내용이다. 붓다의 생애 년대에 따르면 마라에 붓다의 승리 이야기는 8가지 승리 이야기 중 가장 이른 것이다. 6번째 계송인 붓다와 삿짜까(Saccaka)의 논쟁은 붓다가 베살리(Vesali)에서 다섯 번째 안거를 지낼 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다섯 번째 계송의 찢짜 마나비카에 대한 붓다의 승리는 붓다가 사뱃티에서 일곱 번째 안거를 지낼 때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두 번째 계송의 알라바까(Ālavaka) 야차를 조복시키는 이야기는 붓다께서 정각을 이룬 뒤 16년 후에 일어난

40) MN., I 326ff; J., III 220ff.

41) U Paññāsāmi 1992, 20; Tin Tin Lay 2012, 1에서 재인용.

42) Mingun Sayadaw 2008, 624.

일에 근거하고 있다.⁴³⁾ 네 번째 계송인 앙굴리말라의 교화는 20년에 이루어졌다.⁴⁴⁾ 7번째 계송인 난도빠난다 용왕의 교화도 20년에 이루어졌다.⁴⁵⁾ 8번째 계송인 브라흐마 바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는 붓다의 정각 후 20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⁶⁾ 세 번째 계송의 미친 코끼리 이야기는 붓다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8가지 승리 이야기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8가지 승리 계송의 작지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계송을 만든 것이다. 다른 기준에서 8가지 계송의 순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8개의 에피소드는 붓다의 생애 중 발생한 주요 사건이므로 붓다의 교화 활동 중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8개의 계송 에피소드의 순서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순위	계송 에피소드 순서
1	첫 번째 계송: 마라에 대한 붓다의 승리(정각 직전)
2	여섯 번째 계송: 삿짜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정각 후 5년차)
3	다섯 번째 계송: 찢짜 마나비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정각 후 7년차)
4	두 번째 계송: 야차 알라바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정각 후 16년차)
5	네 번째 계송: 앙굴리말라에 대한 붓다의 승리(정각 후 20년차)
6	일곱 번째 계송: 난도빠난다 나가에 대한 붓다의 승리(정각 후 20년차)
7	여덟 번째 계송: 브라흐마 바까에 대한 붓다의 승리(정각 후 20년차)
8	세 번째 계송: 날라기리 코끼리에 대한 승리(붓다의 말년)

내용상 자야망갈라 가타의 8개 계송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붓다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붓다의 승리를 찬양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첫째 부분은 다시 2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첫 부분은 붓다의 적들에 대한 묘사이고 둘째 부분은 붓다가 어떻게 적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였는가를 노래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분석하면 자야망갈라 가타는 붓다의 위대한 승리와 축복에 대한 계송이다.

43) 일창 2012, 383.

44) Malalasekera, G.P. 1974, 22.

45) Mingun Sayadaw 2008, 828.

46) Mingun Sayadaw 2008, 818.

8개의 에피소드 중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8개의 승리 이야기에서 절반 이상이 신화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제1 계송엔 마라가 등장하고, 제2 계송엔 야차가, 제7 계송엔 나가(nāga)가 그리고 제8 계송엔 브라흐마 신이 등장하고 있다. 제3 계송엔 코끼리가 등장하고 있어 코끼리는 동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제4계송, 제5 계송 그리고 제6 계송엔 인간이 등장하는데 앙굴리말라는 사악한 인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삿짜까와 찐짜는 불교를 따르지 않는 의도를 대표한다.

8명의 교화 대상자를 붓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상자의 근기에 따라 붓다는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 계송에서 마라는 직접적으로 붓다를 공격하지만 붓다는 보시 등의 바라밀로 대응하고 있다. 두 번째 계송에서 붓다는 야차에게 먼저 다가가 야차로 하여금 도전을 하도록 유발하고 대결에서 승리한다. 세 번째 계송에서 날라기리 코끼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붓다는 미리 알면서도 코끼리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교화시킨다. 네 번째 계송에서 붓다는 일부러 앙굴리말라를 찾아가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교화한다. 다섯 번째 계송에서 붓다는 여인의 비방을 받지만 직접 방어하거나 논박하지 않고 대신 제석천이 개입하여 여인의 계락을 무너뜨린다. 여섯 번째 계송에서 삿짜까의 도전을 거절하지 않고 논쟁에서 이긴다. 일곱 번째 계송에서 붓다는 일부러 난도빠난다 용왕의 도전을 유발하고 제자를 보내 교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계송에서 붓다는 일부러 브라흐마 신을 교화하기 위하여 직접 천상에 가서 교화한다.

이상 요약해 보면 네 개의 계송(2, 4, 7, 8)에선 붓다가 의도적으로 대상으로 하여금 붓다에게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교화시키고 있다. 또 다른 네 개의 계송(1, 3, 5, 6)에선 상대의 도전을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여 교화시키고 있다. 왜 붓다가 특정 대상자를 선택해서 교화였는지는 문헌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대상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성인의 과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붓다는 그것을 알고 친히 찾아간 것이다.

4. 계송의 활용과 성격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는 자야망갈라 가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주요한 신행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축제 현장에서 낭송되고 있다. 거의 모든 학

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매일 이 계송이 외워진다. 결혼식장에서 대개 10세 이하의 소녀들이 하얀 옷을 입고 신랑과 신부 앞에서 축복을 기원하며 자야망갈라 가타를 운율에 맞춰 노래한다.⁴⁷⁾ 일반적으로 자야망갈라 가타는 주요한 행사에서 부분적으로 빠릿따의 일부 또는 빠릿따와 연관하여 암송된다. 결혼식 등 주요 인생의 통과의례에서, 중요한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등 주로 암송된다.⁴⁸⁾

세 가지 측면에서 가타의 활용과 성격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자야망갈라 가타는 찬불가(讚佛歌)이다. 붓다에 대한 찬가로 붓다의 승리를 칭송한 것이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붓다의 8가지 승리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타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붓다의 생애 중 주요한 사건 8가지를 선별하여 붓다를 찬탄하는 것이다. 상좌부 전통에서는 예불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재가에서도 독송되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는 붓다의 위대한 능력 중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루기 힘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조어장부(調御丈夫)로서의 붓다, 인간을 위시한 모든 존재의 스승인 삼계도사(三界導師)로서의 붓다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논리적 가르침, 인욕, 신통 등 다양한 방편을 이용하여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있는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 자야망갈라 가타이다.

둘째, 자야망갈라 가타는 호신주(護身呪, paritta)로 널리 애송되고 있다. 이 계송은 여러 가지 장애나 위협 등을 막아주는 것으로 신앙되고, 규칙적으로 이 계송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자에겐 길상(吉祥)의 일이 생긴다고 신행되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는 붓다의 승리에 대한 것으로 그 승리가 나에게 임하길 바라는 축복의 노래이다. 그래서 각 계송마다 후렴구가 붙는데, 이는 “이 위대한 힘으로 승리와 축복이 제게 임하길 바랍니다.”라는 뜻이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후렴구는 1번 계송부터 8번 계송까지 모두 동일하다. “이 위신력으로 승리와 축복이 제게 임하소서!(*Taṃtejasābhavatu me jayamaṅgalāni*).” 키워드는 ‘승리 (jaya)와 축복(maṅgalā)’이다. 붓다가 적에게 승리 하였듯이 그 승리와 축복 자신에게도 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me’를 ‘te’로 바꾸면 상대방에 대한 축원이 된다. 빨리어 ‘me’는 ‘나에게’의 뜻이지만, 빨리어 ‘te’는 ‘그대에게’의 뜻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때 “이 위신력으로 승리와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소서!(*Taṃtejasābhavatu te jayamaṅgalāni*)”라고 축원한다. 붓다의 위신력을 찬양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역경을 극복하거나 행복을 성취한다. 이런 측

47) Lily de Silva 1981, 11.

48) Kariyawasam A. G. S. 1995, 21.

면에서 자야망갈라 가타는 석가모니 붓다의 위신력에 의존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 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⁴⁹⁾

셋째 출가 승려를 위한 교육용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정식 구족계를 받기 전 사미(sāmanera)의 신분일 때 자야망갈라 가타를 다른 호신주(paritta) 텍스트와 함께 배운다.⁵⁰⁾ 피야닷시 테라(Piyadassi Thera)는 빠릿따 문헌은 원래 출가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로 보고 있다. 빠릿따를 모은 교재는 붓다의 가르침을 선별하여 편집된 것으로 원래 갓 출가한 사미를 위해 만들어진 입문서이다. 방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모두 학습할 수 없는 사미들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빠릿따를 배우면 붓다의 가르침 중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⁵¹⁾ 빠릿따 문집은 상좌부 불교 사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원용 교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재가자를 상대로 법문을 할 때, 축복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출가 승려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미들은 빠릿따를 외우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빠릿따 의식(ritual)에 참여한 청중들에게 신심을 고취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다. 승원에서 빠릿따를 학습함으로써 출가 승려들은 빠릿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⁵²⁾

IV. 결어

자야망갈라 가타는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국가에서 널리 애송되고 있다. 특별한 행사나 출생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합송되거나 독송되고 있다. 자야망갈라 가타의 8개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순간 한국의 불자들은 8상도를 상기할 수 있다. 8이라는 숫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상 붓다의 일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동북아시아 불교 국가에선 8상도가 붓다의 탄생에서 입멸까지 주요 사건을 보여주는 붓다의 전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에 자야망갈라 가타는 남방불교 국가에서 붓다의 정각과 중생 교화 중 주요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북방불교의 팔상도와 남방불교의 자야망갈라 가타의 공통 항목은 정각을 둘러싼 붓다와 마라의 대결 장면이다.

49) Peter, Havey 1993, 64.

50) Samuels, Jeffrey 2005, 340.

51) Piyadassi Thera 1975, 5.

52) Samuels, Jeffrey 2005, 346-348.

붓다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까지 한 사례가 자야망갈라 가타의 여덟 가지 계송의 내용이다. 붓다를 공격한 정도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붓다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우이다. 마라, 야차, 앙굴리말라, 날라기리는 붓다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이 중 날라기리는 데밭땃따의 계략에 의해 붓다를 공격한 것이다. 붓다에 대한 적의를 품고 죽이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날라기리는 붓다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마라, 야차, 앙굴리말라는 붓다를 목표로 삼아 살해하려고 하였다. 찌짜, 바까, 삿짜까, 난도빠난다는 붓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붓다를 굴복시키려고 한 경우이다. 찌짜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붓다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시도를 하였고, 삿짜까는 논쟁으로 붓다의 권위를 굴복시키려고 하였고, 난도빠난다와 바까는 자신들의 사건을 교정하려는 붓다에 분노하고 저항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붓다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찌짜는 사문 외도를 대표하고 있으며 삿짜까는 붓다 당시 라이벌이었던 자이나교를 대표하고 있다. 브라흐마 바까는 브라흐만교를 대표하고 있다. 붓다 당시 종교계를 세 명이 대표하고 있다. 앙굴리말라는 악인(惡人)을 대표하고 있으며 마라, 난도빠난다, 야차는 신들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 날라기리 코끼리는 동물계를 대변하고 있다. 종교인, 악인, 신, 동물 등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붓다의 모습을 자야망갈라 가타는 보여주고 있다.

붓다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교화하고 있다. 악마 마라가 수천의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여 붓다를 죽이려할 때 보시 등 선법으로 접수하였고, 미친 코끼리 날라기리가 돌진할 때 자비의 세례로 교화하고, 찌짜의 비방에 대해서도 붓다는 직접적으로 비방을 반박하지 않았다. 야차에겐神通력을, 난도빠난다에겐 제자를 보내 제압하도록 하였다. 앙굴리말라와 삿짜까에겐神通력과 범문으로 교화하였다. 붓다는 인내와 자비로, 때로는神通력으로, 때로는 지혜로 해치려는 무리들을 교화하였다. 상대의 공격에 대해 붓다는 상대를 해치거나 위협하지 않고 교화시키고 있다. 무기를 사용하거나 상대를 다치게 하는神通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리는 곧 축복으로 이어진다.

약호

- J. *Jātaka with Commentary*, 7 volumes, ed. V. Fausbøll 1877-1896, 1990-1, 2018 (PTS).
DhpA. *Dhammapada Commentary*, Vol. III ed. H.C. Norman 1912, 1993 (PTS).
MN. *Majjhima-nikāya*, Vol. II V. Trenckne 1896-98, 1993 (PTS).
PTS the Pali Text Society.
Sn. *Suttanipāta*, ed. D. Andersen, H. Smith, London, 1913 (PTS).
Vin. *Vinaya-piṭaka*, Vol. II, ed. H. Oldenberg, 1880, 1977, 1995 (PTS).
Vism. *Visuddhimagga*, ed. Mrs C.A.F. Rhys Davids, 2 volumes, 1920, 1921, reprinted as one vol 1975.

1차 자료

- Jinacarita, ed. W.H.D. Rouse the Pali Text Society, 1905. (PTS)

2차 자료

- 일창 2012. 『부처님을 만나다』. 서울: 이슬.
전재성 2016. 『예경지송』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 Ācariya Buddhārakkhita 2016. *Jayamaṅgala Gāthā: Verses of Joyous Victory*. A Commentary by Bhikkhu Pesala, Association for Insight Meditation.
Bodhi, Bhikkhu (ed.) 2005. *A Treatise on the Paramis: From the Commentary to the Cariyapitaka by Acariya Dhammapala* (The Wheel, No. 409/411).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Mahinda, Deegalle 2002. “Textuality of the Jayamangala Gatha and its liturgical role in modern Buddhist marriage ceremony.” In: Editorial board (Premasiri, Pal.), ed. *Buddhist studies :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Lily de Silva*. University of Peradeniya, Peradeniya. 183-197.

- Gombrich Richard 1971. *Precept and Practice: traditional Buddhism in the rural highlands of Ceylon*. Oxford: Clarendon Press,
- Kariyawasam, A. G. S. 1995. *Buddhist Ceremonies and Rituals of Sri Lank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Harvey, Peter 1993. “The Dynamics of Paritta Chanting in Southern Buddhism”, Karel Werner (ed), *Love Divine: Studies in Bhakti and Devotional Mysticism* Surrey: Curzon Press. 53-84.
- Horner, I.B. (trans.) 1975; reprinted 2000. *The Minor Anthologies of the Pali Canon* (Part III): ‘Chronicle of Buddhas’ (Buddhavamsa) and ‘Basket of Conduct’ (Cariyapitaka). Oxford: Pali Text Society.
- Lily de Silva, 1981. *Paritta: A Historical and Religious Study of the Buddhist Ceremon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Sri Lanka*. Spolia Zeylanica, vol. 36, ed. P.H.D.H. de Silva. Colombo: Department of Government Printing.
- Malalasekera, G.P. 1974 [1937].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s*, Routledge & Kegan Paul, Boston, MA. Masefield .
- Mingun Sayadaw 2008. *The Great Chronicles of Buddhas*, Singapore edition.
- Nalinaksha Dutt 1978. *Buddhist Sects in India*.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Delhi), 2nd Edition.
- Piyadassi Thera 1975. *The Book of Protection: Paritt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Samuels, Jeffrey 2005. “Texts Memorized, Texts Performed: A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paritta in Sri Lankan Monastic Educ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ume 28, issue 2. 339-367.
- R.L. Soni 2013. *Life’s Highest Blessings-The Maha Mangala Sutt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Thapar, Romila 1980. *Asoka and the decline of the Maurya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in Tin Lay 2012. “A Gripping Narrative of the Buddha’s Great Victory over Saccaka: Reflection of the Cullasaccaka Sutta” *The 4th International Buddhist Research Seminar MCU*, Thailand.
- Tessa J. Bartholomeusz, Chandra Richard De Silva 1998, *Buddhist Fundamentalism and*

Minority Identities in Sri Lank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

U Paññāsāmi 1992. *Ten Treatises Training Myanmar Translation* Yangon: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Wells Kenneth Elmer 1939. *Thai Buddhism: Its Rites and Activities*. Bangkok Times Press.

<https://www.youtube.com/watch?v=Wx6HSsa25yw>. (검색일자: 2019. 1.31).

<https://www.bps.lk/olib/mi/mi014.pdf> (검색일자: 2019.1.13.).

A Study of Jayamaṅgala Gāthā, or verses on the Buddha's Victory and Blessing

Yanggyu An

(Professor, Departmen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Gyeongju])

The Jayamaṅgala Gāthā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recited texts in the Southeast Asian Buddhist world. It is usually recited on important occasions like a marriage ceremony, or when setting out on an important journey, or when inaugurating any venture of significance. The contents of the stanzas recited clearly show that the ritual is intended to bring happiness and prosperity to the persons concerned 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 project. Hence, these verses have come to be called “the stanzas of success and prosperity.” While the origin of these stanzas is shrouded in mystery, it can be deduced that they were composed in Sri Lanka by a devoted Buddhist poet, during the 11th and 13th centuries.

These stanzas are regarded as efficacious because they relate eight occasions, when the Buddha triumphed over his powerful opponents. The stanzas consist of eight episodes: 1. Māra defeated by the Buddha, 2. Ālavaka converted by the Buddha, 3. pacifying of Nāḷāgiri by loving-kindness, 4. conversion of Aṅgulimāla, 5. exposure of Ciñcā's lies by serenity, 6. Sacca humbled by wisdom, 7. Nandopānanda tamed by Mahā-Moggallāna, 8. Baka Brahma cured of conceit by wisdom. These eight verses recall

the great events which took place between the Buddha and his powerful opponents, who had tried to kill, or humiliate, or defeat him. They also show how the Buddha overcame all these disturbances peacefully through his great virtues; and finally how the Buddha converted his opponents to follow the righteous way of living. One who recites these verses regularly and mindfully following the example given by the Buddha, can overcome many difficulties.

Each time the Buddha triumphed over his adversaries, he left them with realizations, and in awe of the pure powers of generosity, patience, self-control, loving-kindness, serenity, truthfulness and other virtues. One can use the gatha as a reflection on the Buddha's qualities (Buddhānussati). Jayamaṅgala Gāthā is a set of eight benedictory stanzas extolling the virtues of the Buddha. It may also be cited as a popular rite partly related to the chanting of paritta (protection). It is learned by novice monks in monastic education.

key words : Jayamaṅgala Gāthā, verses on the Buddha's victory and blessing, protection (*paritta*), Southeast Asian Buddhist world

2019년	9월 18일	투고
2019년	10월 14일	심사완료
2019년	10월 17일	게재확정